
Myō



Park
Min
J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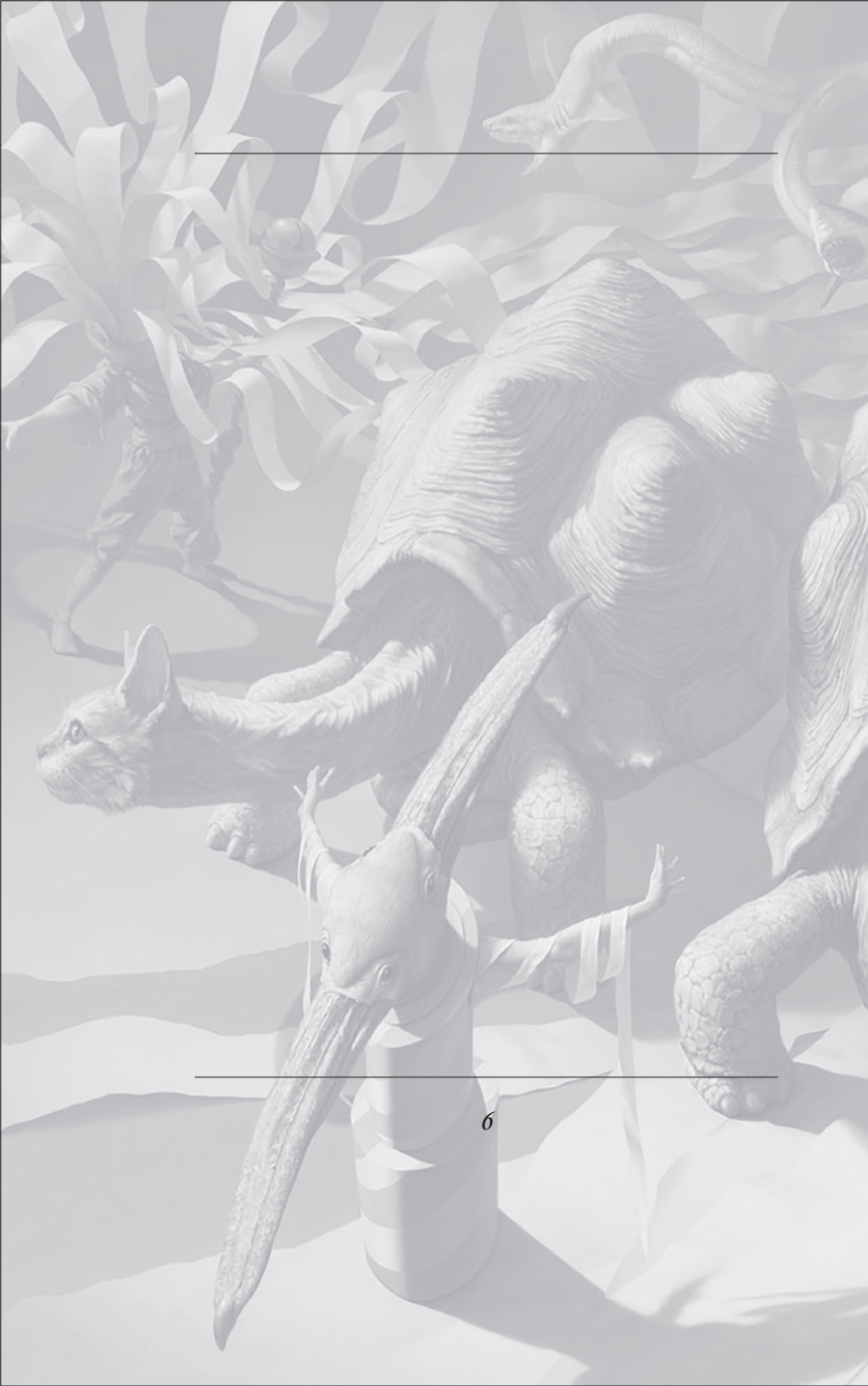
Myō
—
Park Min Joon

Tokyo Gallery
+
BT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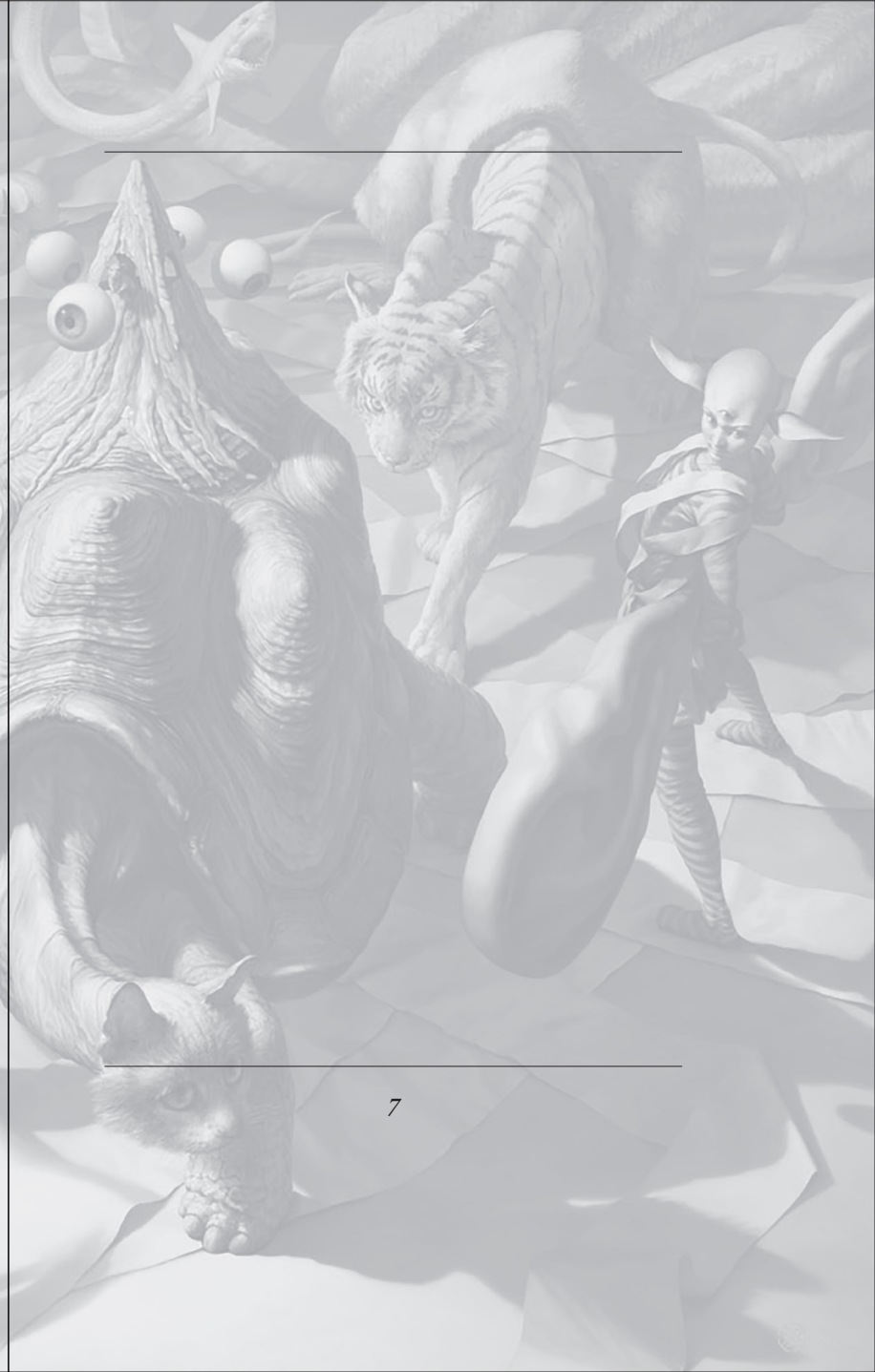
「묘」

상상으로 만들어진 형상이
 현실과 차이를 둘 때
 그 거리만큼의 공간이 생겨난다.
 그 빈 공간사이엔 어떤 감정이
 자리 잡게 되고 이 감정을 ‘
 묘’라 정의한다. '묘' '하다란
 감정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
 서로 맞닿아 있으며 경계와 경계
 사이의 공간이 커질수록
 강해진다. 혹 현실과 비현실의
 이질감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에는
 ‘괴이’ 하거나 ‘기괴’한
 ‘괴’란 감정이 만들어 진다.
 추구하는 것이 '묘'라면 이런
 지나침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익숙함은 안정감을,
 어색함은 불편함을 준다.
 안정감과 불편함의 적당한 균형의
 지점에서 '묘'는 만들어 진다.
 이번 작품들은 이 같은
 가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전시를 통해 감상자 역시 작품을
 바라보며 ‘묘’의 감각을 함께
 느끼기를 기대한다.

朴民俊
 (パク・ミンジュン)



6



7

덧씩워진 길 위에서 길을 찾는 일은 힘이 든다.

길을 만드는 묘1이 내뿜는 옥색 리본은 길이 되고 켜켜이 쌓인다. 쌍부리를 가진 펠리컨의 목은 끼끼깍 요상한 소리를 내며 마치 극점에 놓여 갈피를 못 잡는 나침반처럼 뱅그르르 돌아간다.

두 마리의 고양이-거북이가 그 뒤를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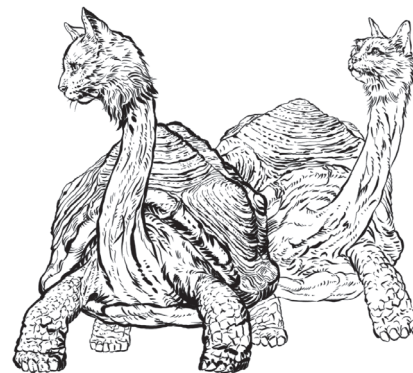
거북등에는 사각뿔 모양의 망루가 있다. 그 곳에는 한 마리의 쥐가 살고 있고, 이 쥐의 역할은 고양이-거북이들이 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다. 각각의 창 밖에는 커다란 눈이 떠있고 그 눈을 통해 전방을 관측하고 길을 찾는다.

정확한 길을 찾는 일에는 집중력과 노고가 필요하다.

쥐는 좁디좁은 사각뿔 안에서 부산하게 전후좌우를 오가며 탐색을 이어간다. 바쁜 쥐에 비해 이를 따르는 묘들은 태평하다. 언제나 그렇듯 책임을 맡은 이는 바쁘고 따르는 이는 여유로운 법이다. 원체 길을 찾는 일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묘1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길들이 겹쳐지며 본래의 길을 찾기란 더욱 어려워진다. 여럿이 오고 간 눈발에서 첫 걸음의 선명함을 찾을 수 없듯이 덧씩워진 길 위에서 길을 찾는 일은 힘이 든다. 가야할 곳이 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 그 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노력과 수고를 들여도 결과는 매한가지다.

다만 길을 찾으려는 굳건한 의지가 삶의 방식이 되고 인생이 될 뿐이다. 길을 나선 이상 걸음을 떼고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설사 원치 않는 길이라도 옳은 길이라 믿으며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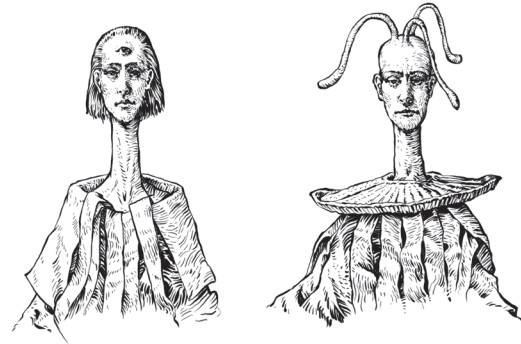
표

Ignoramus et ignorabimus, 우리는 모른다. 영원히 모를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지만 증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는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들, 존재했지만 사라졌고, 없었지만
생겨난 것들, 있어야 하지만 없고, 없어야 하지만 있는 것들.
모순투성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미 알고 있던 일이
실제인지 허구인지, 혹은 조작되어진 것인지조차 알 도리가
없다. 역사는 남기고자 하는 이의 의도대로 남겨지고 단순히
믿는 이가 많은 쪽이 진실이 된다. 실제로 본 적 없는 사실을
기록이나 역사에 남겨져 있던 이유로 그렇다 믿을 뿐, 정작
우린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린 만들어진 것과 실재를
구분할 수 있을까. 과거에 악어 머리에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짐승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오래된 문헌에 구체적 기록도
남겨져 있고 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구전도 되어 왔다면
그것의 존재는 기정사실화 된다.

‘짐승은 존재했다’

이곳에 두 명의 인물과 두 마리의 짐승이 있다.
이들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가. 물론 상상으로 만들어진
형상들이지만 앞서 말한 조건과 충분한 시간만 갖춰진다면
실체가 될 수도 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차피 혼돈의 세상이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그저
마음가는데로 믿으면 그게 답이 된다. 우리는 모른다.
영원히 모를 것이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il mondo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다다라 바라본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
가장 완벽한 세상, 하지만 한없이 덧없고 허무한, 아무도 없어
고요할 세상의 정상.



너의 것은 나의 것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욕심은 인간의 본능이다. 생각이란 걸 하는 한 욕심은
계속된다. 결국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면 욕심은 멈출 수
없다. 욕심을 없애고자 한다면 방법은 오로지 하나,
 생각을 멈추는 일,
하지만 바보가 된다는 사실도 반드시 명심하자.



토끼 귀 여인

제멋대로인 커다란 몸뚱이와 현명한 머리는 어디로
가야할지 모른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결국 갈 길을 찾지
못한다면 제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가졌기에 어디든 갈
수 있고 언제든 떠날 수 있지만 정작 가야할 곳을 알려주는
것은 언제나 결핍이다.



동형이종(同形異種)

인간이 동물의 능력과 외형을 갖게 된 상태와 동물이 인간의
능력과 외형을 갖게 되었을 때 별다른 표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둘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을까?



토마토 생존기

-토마토는 눈이 없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한 발자국 잘못 내딛는 순간 모든 건 끝장이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선 온 신경을 집중시켜야 한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토마토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정작 위험을 감지할 수 없는 토마토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위기는 단지 바라보는 이들의 몫일 뿐.



연연 (戀戀)

아득히 떨어진 시간,
남겨진 곁데기,
간신히 부여잡은 무엇,
날 수 없는 날개와 비어버린 눈,
깨어질 듯 연약한,
하지만 지켜야 할
마음만이 남았다



무지(無知)를 감추는 현명함

감출수록 드러나는 것이 무지함이다. 쉽게 감춰지지도 않을
뿐더러 불식간에 새어 나와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한다.
혹여 한순간에 푹푹해지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선명하게 무지를 드러내는
과감함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생각은 부디 접어두시라.
그렇다면 현명하게 무지를 감추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질문이다. 그렇다. 모르면 물어보라. 아는 척 하지 말고
그저 질문하라. 답을 이해 못한다 해도 좋다. 묻고 또
물어라. 질문을 받아 줄 주변이 모두 사라지고 없다면,
드디어 바라던 성공이다.



쌍두사자(雙頭獅子)

현실이 두려운 사자, 내일을 기다리는 사자, 두 사자는 본디 하나이고 함께 공존한다. 무언가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무언가를 얻게 될 것이란 기대감, 모두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하지만 그 ‘무엇’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현현(顯現)

불쑥 등장한 자신의 다른 모습에 당황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설사 예측불가의 당혹스러운 모습일지라도 말이다.
내면의 깊은 곳에 있던 또 다른 자아일 뿐이다. 어느 쪽이
진짜 자신의 모습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본인의
판단 따위는 중요치 않다.

밖으로 드러난 그 한 번의 모습으로 당신의 삶은
규정지어질 것이다.

당신이 살아 온 시간 바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Park Min Joon 「妙」

2025年3月1日—4月5日

ディレクター：田畑幸人

編集・デザイン：大原健一郎 (NIGN)

翻訳：稲葉真以

校閲：崔セミナ、佐々木博之

写真撮影：岡野圭 (PHOTO STUDIO A2)

企画・発行：東京画廊+BTAP

©2025 Tokyo Gallery +BTAP



東京画廊+BTAP

[東京]

〒104-0061

東京都中央区銀座8-10-5

第4秀和ビル7階

Tel: 03-3571-1808

Fax: 03-3571-7689

[北京]

中国北京市朝陽区酒仙橋路4號,
798藝術區内陶瓷三街E02, 8503#,
郵政編碼100015

Tel: +86-10-8457-3245

Fax: +86-10-8457-3246

ディレクター：山本豊津、田畑幸人

スタッフ：佐々木博之、鈴木佳世、唐潔、崔セミナ、迟丽萍、姜雪

